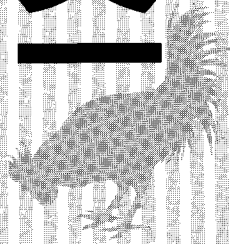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국

닭의 복수증 예방을 위한 사육기술 개발

미 농무부 농업조사국(ARS) 과학자들은 육계 생산자들에게 있어 매년 1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하는 닭의 치명적 심장질환인 복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육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ARS 연구팀은 복수증에 걸리면 심장의 우심실이 확대되어 폐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폐사하게되며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피해가 크다는 것에 착안점을 두어 아칸소주 대학과의 4년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인위적으로 고도를 높인 조건에서 복수증 발병이 20% 이하인 저항성이 강한 닭과 80% 이상인 복수증에 민감한 닭 계통을 선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현재 복수증 억제를 위하여 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사료에 관하여 연구중으로, 가축 생산자들은 적절한 사육온도를 유지하고 양계장의 환기를 주의하여 공기를 개선하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USDA)

일본

채란계 사육호수, 수수 모두 감소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금년 2월기준으로 조사, 발표한 채란계의 사육현황을 보면 사육호수와 사육수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채란업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1일 현재 채란계 사육호수(1천수 이상 사육규모 농장)는 4,890호로 지난해에 비해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계사육수수(6개월령 미만 제외)는 1억4천28만 7천수로 지난해에 비해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사양가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축산경기 침체 등에서 들수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 농장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계사육수수는 1호당 500수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鷄鳴新聞)

스위스

수입 급증에 따른 대책 부심

스위스의 지난해 수입계란은 3억8천만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계란 생산이 전년에 비해 6.9%가 감소한 5억9천만톤에 그친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입단가도 1998년에는 개당 7센트(미국달러)였으나 지난해는 6센트로 가격이 싸지면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조란의 경우 무려 59%가 증가한 1,622톤이 수입되어 수입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WP)

덴마크

위생적인 닭고기 소비 경향 뚜렷

덴마크의 닭고기 생산 전문회사인 FDB와 Danpo사는 캄필로박터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없는 닭고기 생산기술을 개발, 닭고기 보급에 나서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처음 개발된 이 닭고기는 최근 냉동처리되어 판매가 되는데 주문량이 많아 신선한 상태로 배달되기도 한다. 이 닭고기는 냉동전에 살균과정을 거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살짝 데치면서 맛과 고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균은 덴마크에서 음식 식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균이기 때문에 이 닭고기의 개발은 닭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WP)

호주

케이지 사육 금지 가시화 될 듯

호주도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일고 있는 케이지 사육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 움직임은 자칫 양계산업 위축현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물애호보호협회는 이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현재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 비율은 91%로 940만수가 사육되어지고 있으며 방사계는 10만수로 집계되었다.(PI)

인도

인도 2000국제가금박람회 성황

지난 3월에 열린 인도의 국제 가금 박람회가 전세계인 6,200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박람회는 인도 무역협회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RDJ사 등이 적극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벤처사업체들이 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외국 참가자들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투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대회는 2001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WP)